



TOM ROSEN

아메리칸 푸드 그룹의 대표로서 이 자료를 통해 저와 회사 전 직원들은 전세계 수출시장에 항상 변함없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자사 육류제품을 30년 이상 전세계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수출해 왔으며 수출시장의 독특성과 기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사의 다양한 육류 제품들이 미국 육류 생산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성공은 일상적 경영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가장 높은 기준을 실시한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은 저희 회사가 성공한 원동력입니다. 저희 아메리칸 푸드 그룹은 전세계 소비자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육류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육류 제품들의 생산은 수출 시장을 위하여 각별히 소를 사육하는 생산자들과 그 시작을 함께 합니다. 저희는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제품 공급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하셔서 저희 직원들과의 상담을 통해 식품 안전과 고품질 육류 제품 생산에 대한 저희의 약속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로즌 (Thomas Rosen)

저희는 하루에 6백만 파운드(약 2천7백톤) 이상의 쇠고기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우 구매

- 1) 자사 사양에 맞게 주문 비육된 미국 중서부 지역 고품질 생우 선별
- 2) 아메리칸 푸드 그룹이 선별한 생우가 품질 기준에 부합되도록 자사 생우 구매팀이 비육장에서의 일상적인 감사 실시
- 3) 출생증명 및 치아감별을 통한 생우 월령 추적시스템

아메리칸 푸드 그룹의 생우 구매자들은 수십 년 간의 경험으로 생우의 품질과 가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생우 구매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출하용 생우 품질 평가 및 경쟁력 있는 구매 기법을 신중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우 구매자들은 시장에서 더욱 존중 받고 있으며, 성실함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기반으로 방목업자들과 소 생산자들과의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푸드 그룹은 과거 수년간 전국적 차원의 생우 구매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지역별로 다양한 생우 시장에 접근하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메리칸 푸드 그룹의 생우 구매자들은 선별한 생우들이 시장의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육장 운영상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생우 월령을 증명서나 치아감별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푸드 그룹의 쇠고기 품질은 소 생산의 원천적 차원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규모가 큰 반면에 개별화된 고객서비스 또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푸드 그룹은 가장 높은 서비스 수준에 의해 뒷받침 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의 쇠고기를 공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메리칸 푸드 그룹은 품질과 고객서비스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푸드 그룹은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소고기 팩커로서 전국적으로 5개의 도축시설을 운영 중이고 10개의 부가가치 가공공장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4천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미화 2십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도축 규모는 일일 7천5백두 이상이며, 저희는 현재 박스육, 분쇄육, 소매 포장육, 다양한 조리 제품, 소시지류 제품, 핫독 제품, 슬라이스간, 포션스테이크, 다양한 쇠고기스낵류, 그리고 애완동물사료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200대 이상의 동력 장치와 350대의 트레일러를 운용하는 America's Service Line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아메리칸 푸드 그룹의 회사 운영 철학은 고객들의 독특한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한 고객의 필요와 요구를 철저히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고객은 곧 저희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매주 동일한 고객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